www.GangPlant.co.kr
시원하게! 깨끗하게! 믿음직스럽게!
궁플란트치과의원
TEL. 02-722-2870 ※ 회원 및 사무직, 맨즈 클리닉 20% 할인 할인

佛教新聞

불교는 … 불교신문
불자의 의무이자 자부심입니다
구독신청 (02)730-4405

1960년 1월 1일 창간 주간회 발행

불기 2556년 7월 21일(2012년 / 단기 4346년 불력 6월29일) bulgyo.com 대표전화 (02)730-4488 제2834호 토

비구니 수행도량 봉녕사 재가불자 위해 산문 열다

(11면 ☞)

"부처님께 아뢰니다. 계를 받는 저희들은 깊고 깊은 서원에 한 마음으로 절을 하옵니다." 새벽 4시, 수원 봉녕사(주지 지연스님) 대웅광명에 불이 환하다. 내림목 소리에 울을 울리는 젊은이들 의 보살들에는 이미 흥겹도 달아나고 없었다.

비구니 수행도량 봉녕사가 청년들에게 신문을 활짝 열며, 청년포교 도량으로 거듭나고 있다. 봉녕사는 지난 13일부터 3일간 대학생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봉녕사가 지난 2008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실시한 것을 제외하고, 수원법회를 실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잘 자유와 평화에 가까워지는 순간, 봉녕사 템플스테이 중 내 겉고 서울, 경기지역 대학생 30여 명이 참여한 템플스테이는 주제가 있는 경기명상을 비롯해 108 참회, 다도, 마가스님의 '자기 경복장조' 강의 등으로 진행했다.

특히 첫날 입재식 및 습의에 이어 동학사 이원 해봉스님이는 큰 관심을 끌었다. 템플스테이 기간 8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며, 수련생 21가 동안 연꽃을 상기해 수행에 전념하도록 격기 위해 진행했다. 봉녕사 불원장 재연스님을 계사로 진행된 불공재에는 부처님과 보살님께 증명을 청하는 의식을 시작으로 1시간30분에 걸쳐 진행되었으로 진행했다.

"정혜는 하수이 다하도록 상상해서 말라는 것이다. 정혜는 하수이 다하도록 상상해서 말라는 것이다. 정혜는 하수이 다하도록 상상해서 말라는 것이다.